

“후학 위한 아들의 장학사업 의지, 대신 실천해요”

김현기 법무사 후학 양성, 대학발전 위해 1억기탁
아들 **김진홍** 경감 뜻 함께...**김진홍** 장학금 운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3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16년 변호사 공채 3기(경감 특채)로 경찰에 임관했다. 2018년 6월 돌연 순직한 **김진홍** 경감.

평소 애착이 많았던 모교와 법전문 대학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9일 그의 아버지인 김현기 법무사(전북대 행정대학원 96년 졸업)가 전북대를 찾았다. 후학 양성과 대학 발전을 염원했던 아들의 뜻을 잇기 위해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하기 위해서다.

김동원 총장은 지난 19일 김 법무사를 대학에 초청해 김현기 법전문대학원장, 김 변호사의 생전 지도 교수였던 박수영 법전문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법무사는 “아버리서 안타까운 마음 가득 하지만, 아들의 행적을 기억하기 위해 아들의 치열한 짧은 날이 녹아 있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이 아들이 원하는 뜻



김현기 법무사(전북대 행정대학원 96년 졸업)가 전북대에 후학 양성과 대학 발전을 염원했던 아들의 뜻을 잇기 위해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일 것”이라며 “아들의 후배들이 이 장학기금을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아들이 펼치고자 했던 뜻을 후학들이 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기탁자의 뜻에 따

라이 기금을 ‘변호사 김진홍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3년마다 경제 사정이 어렵지만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법전문 학생 5명을 선발해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성=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공로패’ 수상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은 7선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의회 구현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크게 빛낸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사단법인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정읍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범 의원은 2대부터 현 8대에 이르기까지 25년동안 뛰어난 리더십과 주민을 위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바쳐왔다.

김 의원은 “7선 의원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공로패를 수상하게 된 것은 시민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정읍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소방서, 관내 셸프주유소 시설안전점검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여름철 폭염 속 셸프주유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셸프주유취급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주유취급소 업체 간 가격경쟁 등으로 일반주유소를 셸프주유소로의 전환이 늘고 있고 폭염기 온도상승에 따른 유증기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에 화재 취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개됐다.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셸프주유소 시설기준 준수여부, 정전기 방지패드 작동여부,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및 업무태만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군산소방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입건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임실경찰,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 활동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관내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광반사지 부차 및 홍보활동 등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데 도내 경운기 사망사고가 증가추세에 있고 임실 지역도 주로 어르신들의 경운기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경운기로 농사일이나 작업을 하다보면 경운기 적재함 후면에 흙이 묻은 채 운전하거나, 또는 해질 무렵 일을 마치고 운행하는 경우 시인성 부족으로 추돌사고로 이어지고, 또한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되어 치사율도 높아진다.

이에 임실경찰서는 이광반사지 부차 및 야간 안전운행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진장소방서, 영예로운 정년퇴임 행사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0일 가이돌 식당에서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하는 소방공무원 2명(무주119안전센터 소방경 이창노, 마령119안전센터 소방위 구병장)을 위한 간담회 및 오찬의 자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 하는 뜻깊은 정년퇴임을 축하하고, 직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퇴임한 이창노 센터장, 구병장 팀장은 30여년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현장의 최일선에서 항상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하고,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 노력하는 등 평생 오로지 소방과 함께 했다. 또한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소방경 이창노는 육조근정훈장을 지방소방위 구병장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박덕규 서장은 퇴임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꽃다발과 재자기념패 등을 전달했다.

퇴임사에서 이창노 센터장은 “직원들 덕분에 영예로운 퇴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지킴이로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말했고, 구병장 팀장은 “30여년 동안 몸 담았던 소방조직을 떠나려니 사임섭섭하고 공직기간 동안 함께해준 소방 동료들 감사하다. 동료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가슴 속에 잘 간직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고관호 기자

남원서, 경찰교양아카데미 개최

남원경찰서는 20일 오전 서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국립민속극원장인 왕기석 명창을 초청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주제의 경찰교양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관소리의 고장이자 동편제 발원지인 남원의 특징 및 우리의 소리에 대한 설명과 왕 원장의 창을 들려주며 직원들과 합창을 하는 등 색다른 방식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우리는 우리문화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홍범 서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경찰관으로서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시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키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힐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연**